

PD5) 둔치도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전

이준필^{1,2)}, 김맹기²⁾, 박근태¹⁾

¹⁾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과학과, ²⁾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원

1. 서론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둔치도는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로 낙동강 일대를 월동지로 이용하는 철새들의 채식, 휴식, 잠자리제공과 같은 조류 서식지 제공의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둔치도를 제외한 주변지역으로 부산시 시민들의 편의와 여가, 산업 활동 등을 위한 개발 사업이 계획·진행되고 있는 등 자연생태계가 감소하고 아울러 낙동강 하류 조류의 서식지 훼손, 단절, 고립으로 이어져 겨울철새의 월동지인 평야나 둔치, 모래섬 등의 협소화의 진행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철새의 월동지로서 상대적으로 인위적인 간섭 요인이 작은 둔치도의 조류상을 파악하고 기존 낙동강 일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서 인공생태계(도시녹지시설)로 바뀐 일용도의 조류상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철새 월동지로서 둔치도의 보전가치를 입증하고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통하여 환경과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는 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이다.

2. 자료 및 방법

둔치도 일원 조류상 현지조사는 둔치도를 중심으로 육상과 수역(조만강)을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육상은 조류종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한 후 육로를 따라 걸으면서 선조사법과 정점조사법을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역은 육안, 쌍안경, 망원경에 의해 직접 관찰이 가능한 범위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문헌조사는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낙동강하구생태계모니터링 등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일대 구역별, 년도별로 정밀모니터링을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년간의 조사결과를 누적하여 본 조사지역인 둔치도 일대 조류상과 비교·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겨울철 번식이 끝나고 따뜻한 우리나라에 충분한 휴식과 먹이활동을 위해 도래하는 겨울철새는 풍부한 수자원(낙동강, 서낙동강, 조만강 등)과 넓은 평야지역이 확보되어 있는 낙동강 하류 일대를 월동지로서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연구지역에 대한 현지 및 문헌조사 결과, 둔치도는 논 및 밭 비오톱이 대부분 분포하고 있어 낙동강 하류 일대 철새들이 도래하여 채식 및 휴식활동을 위한 생태적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유지되고 있다. 반면 과거 둔치도와 함께 다양한 조류가 출현하였던 일용도는 현재 토지이용현황도 상 도시녹지 시설로 과거(2008년 ~ 2010년) 보다 15종 이상의 조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개발이나 인위적인 간섭도가 낮은 둔치도가 낙동강 하류 일대 철새도래지의 중요한 입지적 거점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철새의 보존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4. 참고문헌

부산광역시 부산역사문화대전, 부산광역시. 부산생활지리정보, 낙동강하구생태계모니터링. 부산광역시. 부산발전연구원. 2003년 ~ 2005년.